

환경문제相談은 784-2003으로

朴英淑의원,「녹색의 전화」개설

오로지 경제성만을 앞세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추진의 後遺症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平民黨 부총재 朴英淑의원이 환경문



朴英淑平민당부총재

제전문상담전화와 사무실을 마련하고 환경오염의 예방과 피해구제에 적극 대처할 뜻을 밝혀 기대를 모은다.
28일 상오11시 汝矣島

여성백인회관 2층에서 현판식을 갖는 녹색의 전화 환경문제상담실이 그것으로 국내 첫 환경문제전문상담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예방책·피해救濟방법등 상세히 指導 전문가 20명이 담당... 국민계몽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국의 塵肺症환자가 1만2천명이 넘고 溫山과蔚山공단의 주민들은 수은 중독때문에 집단이주를 했으며 光陽灣의 양식장은麗川공단의 폐수와 매립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黃化炭素중 열거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열거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朴의원은 그런데도 정부가 마구잡이로 八堂湖에서 골재를 퍼올려 수질을 오염시키고 鰐魚山의 자연환경을 계속 雪嶽山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등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黃化炭素중 열거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朴의원은 그런데도 정부가 마구잡이로 八堂湖에서 골재를 퍼올려 수질을 오염시키고 鰐魚山의 자연환경을 계속 雪嶽山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등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후 녹색의 전화 환경문제상담실은 앞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구제는 물론 국민전체의 생명운동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움직일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녹색의 전화는 전화 784-2003과 2004로 매주 월~금요일 상오 10시부터 하오 5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의 발문상담은 매주 화·수·금요일 상오 10시~하오 5시까지 가능하다. 상담은 환경관계 전문가 20명이 번갈아 맡게 되며 法的소송(로까지 확대될) 법률고문변호인들이 맡아 처리해줄 계획이다.

인대 상담료는 전부 무료다. 朴의원은 특히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날로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해자 보상법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피해자는 3~4년씩 걸리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미 탈진해 버린다고 밝히고 하루속히 정부가 각종 환경문제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안의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녹색의 전화 환경문제상담실의 상담내용은 大氣오염,水質오염,有毒물질피해,소음과 진동피해,해양과放射能,농산물오염문제등 어느것이든 상관없다. (張宗子기자)